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사역 소식: 2026년 4월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사랑을 전합니다!!

이란과의 실제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저희 팀,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이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재활센터와 여성 쉼터에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누고자 합니다.

곧바로 응답된 기도

마탄*은 40세쯤 된 남성으로, 불과 2주 전 저희 브엘세바 재활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출소 뒤 곧바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지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통해 저희 재활센터에 대해 듣게 되었고,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성경공부 모임에서 보았을 때, 그는 매우 조용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몸이 많이 힘드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다리가 쭉시고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슬픈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집에 남아 있습니다. 마약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내가 걱정됩니다. 혼자 있거든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전화를 하세요. 받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를 구하러 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모님 전화를 받았습시다. 장모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딸의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 몸부터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이미 재활센터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내셨습니다. 아내는 어제부터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깊이 숨을 들이쉬 뒤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몸의 통증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 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는 위대하십니다!”

마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뿐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능력도 경험하고, 언젠가 그것을 자신의 가족과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브 사역 세르게이 리박 부디렉터)

소식과 기도 제목: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는 텔아비브 지역에 대한 잦은 로켓 공격 때문에 **아비브 센터**를 일시적으로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전선사령부가 제한을 완화하자마자 센터는 다시 문을 열었고 사역도 재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원봉사 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도시에서 장거리를 이동해 왔고, 오는 길에 로켓 공격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용감한 자원봉사자들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그들 모두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

시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는 지난해 말 **여성 쉼터**의 사역 인력을 확충하고 추가로 전임 사역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독과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 더욱 복잡한 사례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입소자 가운데 한 분은 **린다***입니다. 57 세로, 15 년도 훨씬 전 우크라이나의 한 재활센터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약 7 년 전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연락해, 반복적으로 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오랜 싸움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몹시 지쳐 있었고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쉼터로 초대했습니다. 불과 1 주일이 지났는데 린다는 지금 너무 좋고 때로는 꿈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내적 평안을 느껴 본 적도 없었고 밤새 편히 잠든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제,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이제 자기 마음에 다시 소망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치유를 향해 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린다와 다른 쉼터 입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저희와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도브와 올라 비카스, 그리고 아비브



더 많은 정보와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avivministry.com

Aviv Ministry Israel

Aviv Ministry



avivministry

dovbikas@gmail.com



www.avivministry.com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